

호남 · 제주권 ‘다문화 가구’ 전남 1위

다문화 가구 증가 전북 · 전남 · 제주 · 광주 순 ↑

국적별 다문화 구성비...베트남 · 中 · 中(한국계) 순

호남 · 제주지역에서 다문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었으며 국적별 다문화 구성비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제공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호남 ·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수는 4만5882가구로 전남 1만6325가구, 전북 1만4693가구, 광주 8700가구, 제주 6164가구 순으로 많았다.

2022년 대비 다문화 가구 증감률은 전북(4.5%), 전남(4.2%), 제주

(3.5%), 광주(2.9%)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과 전남은 전국 증감률(4.1%)을 웃돌았다.

2023년 17개 시도별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2.4%) 1위, 경기 · 충남 · 제주(2.2%) 공동 2위, 전남(2.0%) 5위, 전북(1.8%) 7위, 광주(1.4%) 13위를 기록했다.

호남 · 제주 시 단위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 수 상위 5위는 제주시(4324가구), 전주시(3497가구), 익산시(2362가구), 군산시(2247가구), 여

수시(1868가구) 순이었다.

군 단위 상위 5위는 영암군(1053가구), 완주군(1010가구), 해남군(794가구), 무안군(709가구), 화순군(667가구) 순으로 많았다.

2023년 호남 · 제주지역 가구원 수별 다문화 가구 구성비는 3인 가구는 광주(27.9%), 전남(27.3%), 전북(27.1%) 순으로 높고, 제주(26.2%)는 2인 가구가 가장 높았다. 전국 구성비는 2인 가구(29.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는 14만3998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남(5만2817명), 전북(4만5895명), 광주(2만5903명), 제주(1만9383명) 순으로 많았다.

다문화 가구원 증감률은 2022년

대비 전남 · 제주(3.3%), 전북(3.1%), 광주(3.0%) 순으로 증가했고, 호남 · 제주지역 증감률은 전국(3.5%) 보다 낮았다.

호남 · 제주지역 국적별 다문화 대상자 구성비는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모두 베트남, 중국, 중국(한국계) 순으로 높았다.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 구성비는 전국(베트남 22.2% · 필리핀 5.3%) 대비 모두 높았고, 중국(한국계) 국적 구성비는 전국(32.0%) 대비 모두 낮았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남 782건, 전북 694건, 광주 475건, 제주 362건 순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김 호 기자

광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 ↑ · 소득기준 ↓ ...지원대상 질환 1272개 → 1338개로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을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성

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혔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금융기관 취업 희망 청년에

광주시 맞춤형 지원

광주시가 금융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지역 금융공공기관들과 ‘지역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참여했다.

광주시와 금융기관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취업 기회를 지역에 제공하고 높은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권 취업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금융권의 전문성과 광주시의 청년정책 인프라를 결합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금융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점프’를 운영한다.

또 광주시는 금융기관과 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 참여자를 선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조선주 기자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식

15일 오후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식에서 강기정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팹리스기업’ 광주에 잇따라 등지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퓨리오사 등 6개기업과 협약

인공지능(AI)의 핵심인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팹리스)이 광주에 잇따라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반도체 설계를 개발(R&D)하고 인력 채용 등을 약속한 팹리스 1호 유치기업인 에이직랜드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 광주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사의 글로벌 8개 협력사 중 국내 유일 기업

으로 독보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직랜드는 광주사무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설계 후 공정 분야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R&D인력 등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에이직랜드에 이어 광주 팹리스 2호 기업인 에임퓨처도 다음달 GCC

에 광주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고성능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에이직랜드와 에임퓨처에 이어 모아이, 모빌링크, 수퍼게이트, 퓨리오사에 이어까지 총 6개사가 광주에 진출하거나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팹리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인프라, 인재, 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벼 재배 5600농가 경영안정비 19억원 지원

광주시, 재배농가 경영안정 · 친환경농업 유도

광주시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비 19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인증 벼 재배농가에 ha당 120만원을 지원, 친환경면적 확대를 유도한다. 이는 전년대비 35% 인상한 것으로, 친환경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벼 재배농가는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며, 사업 신청

면적에 따라 올해 7월 최종 단가를 확정한다.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대상은 2024년산 벼를 재배한 광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일정면적(1000㎡ 이상)을 경작하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광주에서는 총 56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광주, 재난안전 대응 신기술 공모전

사업화 지원...생활안전 · 자연 · 사회재난 등 대응 기술

광주시는 7월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을 앞두고 자연 · 사회재난 등 안전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참가 기업을 6월1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산업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광주지역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안전 · 방재 · 소방 등 재난안전산업 전반 신기술 공개모집을 통해 총 185건이 접수됐으며, 55건이 우수 기술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국비 기술포제로 연계되는 등 지역 재난안전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자연 · 사회재난 예방, 재난대응 · 복구사업, 재난관련 서비스업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해 신기술을 보유한 광주지역 기업, 예비창업자, 연구기관, 대학 또는 개인이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에약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안서는 재난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에 이어 제안자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도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